

국립공원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동태에 대한 연구

윤 영 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업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ends in problem solving on the National Parks

Youn, Young-il

The Institute of Forestry and Forest Product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lmost every national parks in the world have problems in their own way. The centennial history of national park itself was that of problem solving. Various attempts and testing have done. A successful example of national park is, however, hardly find out till today except for several western countries. Internationally, the socio-economic approach has become a main stream. However, this approach has resulted into a natural degradation of large-scale as well as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and Korea. The other stream in this area has cultural aspects. The way which decreasing socio-economic conflicts and pursuing solutions by the cultural approach to the problems gives good consequences in the national parks of western Europe. The different settings like Korea which have amounts of cultural differences, in contrast with U. S. A, the birthplace of national parks, this way should suggest new possibilities too.

I. 서론

국립공원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비교적 넓은 자연경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되며(ABN, 1985), 환경위기 시

대에 생태교육,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의 실험장으로 사회전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국립공원은 전세계에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부분 서구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이나 제3세계의 많은 국립공원들은 이와는 반대로 날이 갈수록 생태계의 보호가 어려워져서 급속도로 훼손되어 가는 실정이다.

물론, 서구의 성공적인 국립공원도 항상 새로운 도전에 부딪혀 제3세계나 기타 국가와 성격만 다를 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Machlis and Tichnell, 1987). 차이가 있다면 서구권에서는 대개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소, 혹은 축소되는데 반하여, 후진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점이다 (Agrawal, 1991; Basnet, 1992; Hough, 1988; Nash, 1982; Pyrovesti, 1985; Prins, 1992; Ugalde, 1989). 우리 나라의 경우도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날이 갈수록 파괴되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다.

국제기관들, 서구의 우수한 자연보호단체, 환경단체들은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시도된 다양한 대책을 살펴보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 큰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노력의 전반적인 동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한다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한 후에 실패한 시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연구의 방향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립공원에서 문제'의 의미를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문헌고찰 위주로 평가, 분석하여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전세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 나열 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II. 본론

1. 국립공원에서 문제점의 의미

1) 낭만적 국립공원의 근본적 문제

'국립공원에서 문제'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하여 우선 국립공원의 기본 성격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National Park)이란 지난 세기의 중엽, 북미에서 급격한 자연 파괴가 인식되면서 생겨난 자연 중심적인 일종의 이상적인 개념으로 (Sutton, 1972; Nash, 1982; Bratton, 1985; Henke, 1990), 이 발상은 애초부터 자연을 어떤 개개의 대상(예: 꽃, 짐승)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넓은 자연경관 전체의 보호를 추구한다.

그런데, 당시 낭만주의의 영향하에 생긴 국립공원의 개념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에쓰만(Essmann, 1990, P. 74)은 이것을 "낭만주의에 사로잡혀있던 자연에 관한 이상적인 관념은 어느 한 지역을 경험이나 체험 공간의 목적으로 자연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당지역을 천연자원의 이용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인간의 간섭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아직도 자연적인 즉,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을 절대 보호하려는 시도였다..."라고 평가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공원의 기본목표는 '보호'이지 '이용'이 아니며 '보호'의 방법도 자연생태계를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의 교란(예: 대기오염, 오존층의 파괴, 기상 변화)은 이미 지구 전역의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여 어떤 자연경관을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자는 국립공원의 낭만적 이상은 실현에 원천적인 제약을 받는다. 또, 실제 국립공원의 경영과 정책에는 그 밖에도 많은 상반되는 문제들이 따른다 (Youn, 1993).

1) 여기에서 '보호' (Protection)란 Passmore(1974)의 보존(preservation)과 보전(conservation)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함.

2) 국립공원의 이중 목적과 변천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세계의 국립공원 운동은 국립공원을 낭만적인 근원에서 끌어내어 해당 국가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응하는 단계로 이끌어 갔다. 이 과정에서 과거나 현재나 '인간으로부터 자연경관의 보호'와 동시에 '인간을 위한 이용' (Jungius, 1985)이라는 목적의 이중성이 처음에는 양극화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양극화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Norton, 1986)는 것이 확실해지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즉,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립공원 전반에 적절한 변화가 가해졌다.

서구²⁾의 국립공원은 이러한 변천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를 제외한 인구가 조밀한 국가에서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아(ABN, 1985; Bibelriether und Schreiber, 1989; Scherzinger, 1990) 자연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구의 하나가 되었고, 자연환경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국립공원은 더 이상 자연 중심적 이상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기본개념인 '자연보호'를 실현하는 기구가 된 것이다. 또 오늘날 국립공원은 사회의 요구(예를 들면 휴양, 홍보-교육, 연구)에 호응하여야 하므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ABN, 1985; Bibelriether und Schreiber, 1989; Sutton, 1972; Polunin and Eidsvik, 1979; Schloeth, 1989).

서구세계 외의 다른 나라들, 특히 제3세계의 나라들에게도, 이런 형태의 발전은 문제해결에 있어 당연히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ABN, 1985; Agrawal, 1991;

Pyrovesti, 1985). 그러나 제3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국립공원은 이 같은 목표 하에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의 '이용' 위주로 흐르는 다양한 요구에 부딪혀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기본개념인 '자연보호'의 실현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3) 사회적 현상인 국립공원의 문제

국립공원은 사회적 조건이 매우 독특한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한 사회에서 결코 다수를 차지할 수 없는 자연중심적(biocentric)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으며 퍼져나갔다(Sutton, 1972; Nash, 1982; Henke, 1990).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의 조건이 전혀 다른 서구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도입했지만 응용이 불가능했으며, 이것은 국립공원의 현실적응이 필수적임을 뜻한다(Miller, 1982; Mcneely, 1984, 1988; Mcneely and Pitt, 1985; Hough, 1988). 그런데 이 '현실적응'이란 서구의 모범적인 국립공원에서는 문제해결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자연보호'를 뜻하지만 '문제 국립공원'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발전이나 개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리고 계속적인 파괴를 초래하였다.

국제 자연보존 연맹(IUCN)에서는 1991년 모두 107개의 국립공원을 '존립 위협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Thorsell, 1992)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그 존재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서구 이외의 국가들도 자연보호에 관한 한 이제 국립공원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지난 50년 사이에 대개 국립공원 내의 지역만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게

2) 서구 국가들이란 미국, 캐나다, 서유럽의 나라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칭한다. 그리고 이 후의 '서구', '서구 문화권' 등도 이 나라들을 말한다.

되었다(예: 한국, 네팔, 인도). 불과 100년 전만 하여도 이들 국가는 “전통에 따른 사회 형식”(Watts, 1954)에 의해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도 파괴를 막을 수 있었으나, 20세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오늘날 국립공원 내의 면적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립공원을 통한 자연보호는 오늘날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성격 띠고 있다. 제3세계의 많은 국립공원들이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나 UNESCO의 ‘Biosphere Reserve’ 에 속하기 때문이다.

보호와 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형적 문제인 이권대립(Conflicts)은 국립공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반된 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련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제3세계의 국립공원들이 실제경영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많은 마찰을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Machlis and Tichnell, 1987; Shafer, 1990). 결국, 국립공원에서 문제란 간략하게 말하여 대상인 자연경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보호와 이용’ 간의 피할 수 없는 마찰로 파생되는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2. 국립공원과 사회-경제적 여건

1) 사회-경제적 관점의 연구

국립공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이거나, 역사적, 문화적 또는 생물적, 지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Machlis and Tichnell, 1987; Schellhas, 1991). 이 중에서 사회-경제적 조건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문제 국립공원’이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많은 연구들이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 국립공원이 있는 국가를 살펴보

면 그들의 대부분은 문화적으로 자연종교, 힌두교, 불교, 도교와 같은 종교에 의해서(Watts, 1958; Dasmann, 1974; Meadows, 1974; Schleip, 1986; Nicholson, 1987). 혹은 전통적으로 자연에 종속된 그들의 생활방식(예: 아프리카, 아시아)에 의해 자연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자연보호의 개념이 오히려 서구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미 문제해결에 복잡성이 암시되지만 문제를 주로 국립공원의 실제경영 측면에서 보면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여건 때문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가장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며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시도가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책을 해당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Hart, 1966; Hart et al, 1985; Gadgil, 1985, 1990; Machlis and Tichnell, 1987).

사회-경제적 조건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문제해결책으로는 “생태계 경영경제학”(Hall et al, 1985), “보호와 성장”(Harvey and Knamiller, 1981; Svedin, 1985),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원”(Mcneely, 1984; Mcneely and Miller, 1984; Hales; 1989), “이윤-비용 분석”(Pearce and Mler, 1991)에 따른 “최소 단위의 보호”(Randall, 1991), 또는 자연보호를 위한 부채탕감(SWAP. Ebenroth und B hler, 1990)이 제기되었다. 디슨과 셔만(Dixon and Shermann, 1991)은 이 문제를 “...주요 문제점의 하나는...보호를 통하여 산출되는 이익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없어 가치측정이 어렵다...”로 보는 “시장화 실패”라는 색다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 사회-경제적 관점과 문화적 요소

이와는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문화요소를 ‘보호’에 접속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IUCN, 1981, 뉴질랜드). 그러나 이 시도 역시 해결책을 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기 때

문에 이 범주에 속한다. 맥닐리와 피트(Mcneely and Pitt, 1985)에 의해 “보호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소”라고 표현된 이 방식은 지역문화나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역의 참여”를 통하여 자연보호에 이용하려고 논의되었다.

이 시도의 특징은 국립공원을 이끄는 자(행정부, 관리주체)와 끌려가는 자(원주민)가 분리되는 것으로 “문화와 보호”의 개념 역시 이러한 연유로 사회에 서구문화가 주를 이루는 남미의 나라들(Brownrigg, 1985; Torres, 1985), 또는 뉴질랜드(Clad, 1985)에서 토의·시험되었고, 보호지구가 지역민의 생활터전인 인도, 네팔(Jefferies, 1982; Gadgil, 1985, 1992; Sankhalla and Jakson, 1985), 아프리카(Lusigi, 1984; Hough, 1988; Prins, 1992), 또는 태평양 지역(Eaton, 1985; Polunin, 1985; Klee, 1985)³⁾에서 거론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서구화된 이념을 이끌어 가는 주체(대개 정부나 국립공원 관리소)와 직접 피해를 본 토착 원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마찰이 발생한다. 결국 원주민들의 동참을 얻어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로 나타났고 맥닐리와 피트(Mcneely and Pitt, 1985)는 이것을 “아래로 부터의 보호”라고 표현하였다. 물론 동참을 위하여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그리고 일종의 문화적 보상(전통적 생활의 유지)이 우선되어야 한다(Hough, 1988; Hough and Sherpa, 1989).

3) 사회-경제적 해결책의 성격과 그 결과

위에서 열거한 문제분석에 따른 해결책은 관광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거나 국립공원에 원주민의 비집약적인 이용을 허락하여 마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주를 이루며, 루시기(Lusigi, 1984)가 주장하는 ‘보호 단위’(Conservation Unit)나 국립공원을 생

태계 보호지구(Biosphere Reserve)와 연관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제안에 속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관광이나 다른 형태의 이용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경영에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립공원 내에 중요한 경제적 요인(예: 유전, 광물자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더욱 큰 문제로 등장한다(Schloeth, 1989; Youn, 1993). 또, 아프리카에서와 같이 국립공원에서의 외화 획득은 결코 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Hough, 1988).

사회-경제적 해결책들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발전과정을 거친 국립공원의 개선책을 주로 경영의 실제분야에서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제3세계 국가의 경제구조가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자연보호를 고려하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국립공원을 위해서 매우 비현실적이다.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제3세계의 많은 국립공원(Thorsell, 1992)의 경우가 위의 제안들이 근시안적 발상이거나(Hough and Sherpa, 1992),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Mcneely and Dobias, 1991)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적 바탕 위에서 형성되는 국립공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요원한 일인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제3세계를 벗어난 우리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욱 커지고있으며,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미약하여 이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보호와 이용’의 마찰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의 성격은 ‘이용’의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주를 이루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이 자연과 후세의 권리가 강조되는 국립공원의 목적수행에 사회-경제적 접근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로 여겨진다.

3) 태평양지역의 시도는 국립공원과 관련되어 실현된 것이 아니지만 넓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

3. 국립공원과 문화

1) 국립공원과 문화적 시각

사회-경제적 시각과 성격을 달리하는 시각의 주류는 문화적 시각으로 크게 구별된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1872)설립 당시의 근본 취지가 일부 인간 중심적 요소를 제외하면 주로 자연 중심적 요소가 그 주를 이루고 있어(Sutton, 1972; Bratton, 1985; Henderson, 1992), 물질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경제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National Park'가 미국 문화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있는(Harmon, 1987; Henke, 1990)것도 이 시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국립공원은 자연보호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오늘날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예전과는 달리 '개인의 인식'이나 '사회의 가치구조' 등이 많이 고려되고 그 방면에서 해결책을 찾으며(Jonas, 1979; Hofer, 1987; Schr der, 1988), 이 분야는 문화의 범주에 속한다(비교, Schlicht, 1990). 자연보호와 가치의 상관관계는 심지어 경제적 측면에서 본 문제해결책에서도 '자연보호'와 관련된 가치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Dixon and Shermann, 1991)을 비추어 보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을 뜻하며 그 개념의 주가 '보호'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의심할 바 없이 미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다. 그런데 이 분야는 주로 한 사회의 예술, 종교, 철학의 상이한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연경관에 대한 자국의 문화적 배경이야말로 국립공원의 도입과 그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지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Youn, 1993).

2)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해결 시도

이러한 연유에서 전술한 사회-경제적인 시각과는 달리 비록 수는 많지 않으나 자국 스스로의 문화적 특수성을 자연보호 수행에 따르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대 한 사례가 있다.

우선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서구문화권 자체에서도 자연경관의 특성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는 문제해결에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독일의 대표적 국립공원인 바이에리쉬발트 국립공원은 집약적 경영림이었던 경관성격상, 또 전통적 입업국인 이유에서 입업 측에서 국립공원의 설립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는데(Youn, 1993) 비하여 프랑스는 국립공원의 경관적 특성을 '고향경관'에 둔 보호를 실행하고있다(Elsässer, 1985).

특이한 예는 영국으로 '가꾸어진 휴양공간'이 국립공원(IUCN의 Category V로 등록)으로 규정되어있다(Blacksell, 1985; Henderson, 1992). 헨더슨(Henderson, 1992)은 이 현상을 영국의 국립공원이 영국인에게 익숙한 '자연경관'인 '가꾸어진' 즉, 인공적인 휴양경관인 것과 원시야생지구(Wilderness area)의 성격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의 국립공원을 자연경관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고찰하였다.

이들 국립공원에서는 문화적 해결이 사회-경제적 해결을 촉진하였고 무엇보다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문제가 많은 제3세계 국립공원에서는 사회-경제적 해결책들이 성공하지 못하자 문화의 한 부분인 고유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통문화를 문제해결에 접목시키려하였다. 특히 루시기(Lusigi, 1984)와 휴즈(Hough, 1988)는 아프리카 국립공원들의 예를 들면서 서구식 국립공원을 그런 나라들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으로 비유했으며, 바스넷(Basnet, 1992)은 네 팔에서 진행되는 국제 자연보호기관의 경영방식에 전통문화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구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중국문화권(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예상외로 이 방면에 관심이 미흡하고 그 예도 많지 않다. 사쿠라이(Sakurai, 1985)는 문화의 차이에 원인을 두었으나 기본적인 어려움은 사회-경제적

(특히 토지소유)인 범주에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에서 서구식 국립공원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윤(Youn, 1993)은 이와는 달리 문제의 원천적인 근원을 문화적 차이로 조명하여 개념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마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있다.

3) 문화권에 따른 시도의 성격

사회-경제적 시각과는 달리 문화적 시각의 문제분석 및 연구는 아직은 그 수도 적고, 일부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접근방식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들은 대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국립공원의 현재 모습이 문화적 차이의 결과임을 주지시켜 현 보호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시에 보호와 이용간의 마찰을 줄여 실제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주로 문화가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서구권의 국립공원이 그 대상이며, 국립공원의 개념과 경영을 자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적절하게 변화시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ABN, 1985; Bibelriether, 1985; Blacksell, 1985; Elsässer, 1985; Henderson, 1992; Youn, 1993).

이들의 특징은 오랜 역사의 산물로 문화경관으로 변한 자국 국립공원이 지닌 자연조건의 열악함을 나름대로 극복하여 전체적으로 오히려 국립공원의 목적인 '자연보호'를 제대로 실행하려는 것이다(Youn, 1993). 또, 사회-경제적 시각에 앞서 문화적 시각으로 바탕을 닦아두었다는 점이다. 즉, 자연경관(문화경관)과 관련된 사회현상에 문화적 시각을 해결의 실마리로 던진 뒤 이해·응용함으로써 국립공원의 목표인 '자연보호'에 임했던 것이다.

서구권과 문화의 성격이 판이한 중국문화권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이 방면의 연구가 매우 부진하다. 동·서의 문화차이로 인한 서구식

'자연보호'의 어려움을 일찍이 와타나베(Watanabe, 1974)가 일본을 예로 들어 고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가 드물다. 또, 그들조차도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차이를 현재의 국립공원정책과 연계시키거나(Sakurai, 1984), 문화적 차이를 국립공원의 概念修正에 이용하려는(Youn, 1993) 시도로 이제 시작에 불과한 형편이다.

Ⅲ. 결론 및 제언

국립공원과 관련된 문제 연구의 국제적 흐름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인 성향이 그 주를 이룬다. 이것은 문제 국립공원들이 주로 제3세계에 존재하고 해당국가의 시급한 사회문제가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국립공원이 존립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더욱이 어느 정도 경제문제가 해결된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시각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연보호'의 개념에는 '회생과 양보'라는 윤리적 개념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립공원은 이제 30년의 역사를 갖지만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근본목표인 자연보호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국제적인 위상확립은 요원한 실정⁴⁾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사회-경제적 압력은 그 강도를 더해갈 뿐이다. 결국 사회현상의 하나인 국립공원의 문제 해결에 단순한 사회-경제위주의 논리로 '사회적 지원'이라는 기본 해결책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 논조는 사회-경제적 시각을 포기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해결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미이다.

이와는 달리 성공한 국립공원을 유지하는 서

4)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IUCN의 보호 II범주인 진정한 국립공원이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자연보호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약함을 보여준다.

구의 문제대응 방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물론 문화의 동질성은 큰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실제경영에 있어서 미국과는 다른 자국 문화경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연보호'를 수행하여 문제해결이 용이하였다. 이것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서구의 문화적인 전통을 연결하여 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말이다.

문화의 성격이 다른 국가에서 자연보호에 대한 고유한 문화적 시각형성에는 당연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어쩌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서구의 모범적 '자연보호'의 수행이 다른 문화권에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국립공원 자체가 위협을 받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분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서구와 자연경관과 관련된 철학, 종교, 윤리관 모두가 큰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우리 국립공원은 전통문화와 매우 밀접한 자연환경(문화환경)이다. 사회-경제적 접근과 동시에 문화적 접근으로 국립공원의 대상인 '자연경관'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와 '자연보호'의 개념에 관한 문화적 시각차이를 고찰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국립공원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급한 때이다.

인용문헌

1. ABN (Arbeitsgemeinschaft beruflicher und ehrenamtlicher Naturschutz, ed.)(1983)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zwischen Erhalten und Gestalten.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Bd. 37. Bonn.
2. ABN (1985) Nationalparke-Anforderungen, Aufgaben und Lösungen.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Bd. 37. Bonn.
3. ABN (1989) Freizeit und Umwelt im Konflikt.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Bd. 42. Bonn.
4. Agrawal, A. (1991) The north-south perspective. Alienation or interdependence? 「Ambio」Vol. 19(2): 94-96
5. Basnet, K. (1992) Conservation practices in Nepal. Past and present. 「Ambio」Vol. 21(6): 390-393
6. Bibelriether, H. und Schreiber, R. L (ed.)(1989) Die Nationalparke Europas. Frankfurt am Main. Süddeutscher Verlag
7. Blacksell, M. (1985) Geschützte Gebiete in Großbritannien. 「Geographische Rundschau」37(3): 130-134
8. Bratton, S. P. (1985) National park management and values. 「Environmental Ethics」Vol. 6(1): 115-133
9. Clad, J. C. 1985. Conservation and indigenous peoples. A study of convergent interests. In: Mcneely and Pitt (1985): 45-62
10. Dasmann, R. F. (1974) Conservation, counter-culture, and separate realities. 「Environmental conservation」Vol.1(2): 133-137
11. Dixon, J. A and Shermann, P. B. (1991) Economics of protected areas. 「Ambio」Vol. 20(2): 68-74
12. Ebenroth, C. T und Bühler, S. (1990) Verschulungskrise und Umweltschutz-Debt for Nature SWAPs. eine Lösung für zwei Probleme? 「Natur+Recht」H.6: 260-266
13. Elsässer, K. (1985) Die Integration von Nationalparks in die Regionalentwicklung. Lösungsansätze in Frankreich. In: ABN(1985): 44-55
14. Essmann, H. (1989) Bodenbelastung durch Landverbrauch. Habilitationsschrift. Uni. Freiburg
15. Hall, D. O, Meyers, N., Margaris, N. N(ed.)(1985) Economics of ecosystems management. Boston-Lancaster. Dordrecht
16. Harmon, D. (1987) Cultural diversity, human subsistence, and the national park ideal. 「Environmental Ethics」 Vol. 9: 147-158
17. Henderson, N. (1992) Wilderness and the nature conservation ideal. Brita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ontrasted. 「Environmental Conservation」Vol. 21(6): 391-399
18. Henke, H. (1990) Grundzüge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des internationalen Naturschutzes. 「Natur und Landschaft」H. 5(3): 106-112
19. Hofer, D. (1987) Naturschutz als Wertobjekt. Eine exemplarische Studie über Einstellungen zu Schutzgebieten. Diss. Forstwiss. Fak. Univ. München
20. Hough, J. L. (1988) Obstacles to effective management of conflicts between National parks and surrounding human commun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Vol. 15(20): 129-136
21. Hough, J. L and Sherpha, M. N. (1989) Bottom up vs. Basic Needs. Integrating conservation and

- development in the Annapurna and michuri mountain conservation areas of nepal and malawi. 『Ambio』Vol. 18(8): 434-441
22.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Nature)(1985)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Gland. Swiss.
 23. Johannes, R. E. (1982) Traditional conservation methods and protected marine areas in Oceania. 『Ambio』Vol. 11(5): 258-262.
 24. Jonas, H. (1979)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ankfur am Main. Insel
 25. Jungius, H. 1985. Das Nationalparkkonzept heute und in Rahmen der internationalen Entwicklung. In: ABN(ed.)(1985): 9-17
 26. Klee, G. A. (1985) Traditional marine resource management in the pacific. In: Mcneely and Pitt (1985): 193-202
 27. Lusigi, W.J. (1984) Future directions for the afrotropical Realm. In: Mcneely and Miller(ed.) (1984): 137-146
 28. Machlis, G. E and Tichnell, D. L. (1987) Economic development and threads to national parks. A preliminary analysis. 『Environmental conservation』Vol. 14(2): 151-156
 29. Mcneely, J. A. (1984) Protected areas are adapting to new realities. In: Mcneely and Miller(ed.)(1984): 1-7
 30. Mcneely, J. A. (1988) Economics and biological diversity. Developing and using economic incentives to conserve biological resources. Gland. Swiss. IUCN
 31. Mcneely, J. A and Dobias, R. J. (1991) Economic incentives for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in Thailand. 『Ambio』 Vol. 20(2): 86-90
 33. Mcneely, J. A and Miller, K. R. (ed.)(1984) National park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e role of protected areas in sustaining society. Bali Indonesia. 11-22 October.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 Pr.
 34. Mcneely, J. A and Pitt, D. C. (ed.)(1985) Culture and conservation. Worcester. U. K. IUCN
 35. Miller, K. (1982) Parks and protected areas. Consideration for the future. 『Ambio』Vol. 11(5): 315-317
 36. Nash, R. (1982) Wilderness and American mind. Yale University press.
 37. Noack, H. (1979) Das Naturschöne als Motive des Umweltschutzes und der Beitrag des ästhetischen Sinne zur Wahrnehmung der Natur. In: Meyer-Abich(ed.)(1979): 59-74
 38. Norton, B. G. (1986)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A conceptual rehabilitation. 『Environmental Ethics』Vol. 8: 195-220
 39. Passmore, J. (1974) Man's responsibility for nature. Ecological problems and western traditions. London. Duckworth.
 40. Pearce, D. and Mälller, K. G. (1991) Environmental economics and the developing World. 『Ambio』Vol. 20(2): 52-55
 41. Polunin, M. and Eidsvik, H. (1979) Ecological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and equivalent reserves. 『Environmental Conservation』Vol. 6(1): 21-26
 42. Prenetta, J. and Hill, L. (1984) Traditional Use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in the pacific basin. 『Ambio』Vol. 139(5-6): 359-364
 43. Prins, H.H.T. (1992) The pastoral road to extinction. Competition between wildlife and traditional pastoralism in east afrika. 『Environmental Conservation』Vol. 19(2): 117-224
 44. Pyrovesti, M. (1985) Conservation versus exploitation in a developing country. In: Hall et al. (1985): 183-190
 45. Sakurai, M. (1984) Adjustment between nature and human activity in National Parks in Japan. In McNeely and Miller(ed.)(1984)
 46. Scherzinger, W. (1990) Das Dynamic-Konzept im flächenhafte Naturschutz. Zieldiskussion am Beispiel der Nationalpark-Idee. 『Natur und landschaft』 H. 65(6): 292-298
 47. Schlicht, E. (1990) Individuelles Bestreben und kulturelles Gefüge Individuelles Verhalten und kollektive Phänomene. Jb.Ökonomie und Gesellschaft. Bd. 8. Frankfurt/Main-New York. Campus: 112-127
 48. Schleip, H. (ed.)(1986) Zurück zur Natur-Religion? Wege zur Ehrfrucht vor allem Leben. Freiburg. i. Br. Bauer
 50. Schloeth, R. (1989) Nationalpark-Weltweit. In: Bibelriether und Schreiber (1989): 29-35
 51. Shafer, C. L. (1990) Nature reserves. Island theory and conservation practice. Smithsonian Inst. Press.
 52. Schröder, W. (1988) Über das Verhältnis des Menschen zur Pflanzen und Tiere. 『Forstw. Cbl』 107: 242-262
 53. Sutton, A. and M. (1972) Yellowstone, a century of the wilderness idea. New York. The Macmillan Co.
 54. Thorsell, J. (1992) Sixteen areas added to global threatened park list. 『Ambio』Vol. 21(2): 187-188
 55. Ugalde, A. F. (1989) An optimal parks system. In: Western and Pearl(ed.)(1989): 145-149
 56. Watanabe, M. (1974) The conception of in

- Japanese culture. Science. Vol. 183: 279-282
57. Watts, A. (1958) Der Mensch in der natürlichen Umwelt und die Liebe von Man und Frau. 1981. München. Kösel. (übersetzung)
58. Western, D. and Pearl, M. C. (ed.)(1989) Conservation for the 21th century. New York-Oxford.
59. Youn, Y.I. (1993) Nationalpark-Idee und Praxis. Disertation. Forstwiss. Fak. Uni. Freiburg.